

## 팩트체크: 정치적 주장에 대한 사실 검증 절실

# FACT-CHECKING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정치인들은 선거 유세장을 떠나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여전히 국민은 정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정치인들의 말을 쫓으며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치인의 말을 국민에게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다. 그러나 언론의 글을 쫓는 것도 때로는 매우 혼란스럽다. 이러한 혼란은 사회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 자본의 가치 추락을 의미한다. 말과 글에 대한 불신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신뢰 자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바로 '팩트체크'의 출발점이다.

정치인과 언론인의 말과 글은 '팩트'와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언론의 주장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공론장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주장들이 공평한 게임의 규칙 속에서 결합하고, 그 결과 국가 정책이 수립, 실행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문제는 정치적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에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정치적 주장은 팩트의 근거가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주장이다. 즉 특정한 정치적 주장의 합리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수용자가 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 지극히 감성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팩트가 없는 주장들도 정치판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통되고 한다.

두 번째 유형의 주장은 특정한 팩트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지만 팩트와 주장의 연관성이 매우 낮은 경우이다. 즉 부적합한 팩트가 정치적 주장에 힘을 실어 주며, 나아가 하나의 실효성 있는 정보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의 주장이 갖는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 경제, 환경, 과학, 복지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보통 국민의 눈에는 그럴듯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의 주장은 적합한 팩트를 근거로 하는 주장이다. 가장 이상적인 유형의 정치적 주장이다. 그 팩트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도 역시 전문가의 식견이 있어야 한다.

'팩트체크'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 유통되는 다양한 주장들에 대한 팩트와 주장의 관계에 대한 검증이다. 매우 예민한 정치적 사안들을 둘러싼 팩트와



주장의 관계 구조에 대한 매우 치열한 검증의 과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팩트체크는 단순히 누군가 이야기해 언론에 회자된 사실 여부의 단순 검증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고도로 전문화된 논증 과정이다.

팩트체크는 미국에서 1992년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발언의 검증에서 시작된 탐사 언론의 한 영역이다. '폴리티 팩트(politifact.com)', '팩트체크(Factcheck.org)', '팩트체커(The Fact Checker)' 등이 많이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 팩트체크 시스템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오마이뉴스에서 시작한 오마이팩트, 그리고 JTBC의 팩트체크 코너 등이 팩트체크의 선구자로 보인다. 국민의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를 진작해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출발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치인과 언론의 정치적 주장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가 매우 예민한 사안이기에 조심스럽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팩트체크의 꽃은 역시 국가대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주장들의 근거, 즉 주장을 뒷받침하는 팩트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다. 미국 팩트체커들의 탐사 언론의 정신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팩트체크는 과다하고 오염된 정보 공해 속에서 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탐사 언론적 도전임과 동시에, 의미 있는 '정보환경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